

1일 Market Index			
↑ 코스피	2747.86	↑ 코스닥	912.45
	(+1.23)		(+6.95)
↓ 금리 (미국 9년)	3.291	↑ 환율 (원/달러)	1349.40
	(-0.031)		(+2.20)



“집단행동 타협 안해...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논의”

尹, '의대증원' 대국민 담화

2000명 산출, 충분한 논의 거쳐
급격한 고령화 대응 최소한 규모
줄여야한다면 통일된 안 제시를
불법행동, 정부 법·원칙따라 대응

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과대학
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
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“2000명 증원
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
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
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”라
고 재차 밝혔다.

다만, “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
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, 집단
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
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
땅하다”며 “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
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
다”고 해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제시를
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
어뒀다.

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
'국민께 드리는 말씀'을 통해 국민 생
명 보호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
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경 등에 대
해 51분간 담화를 발표했다.

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
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,
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
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.

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를 논의 테이
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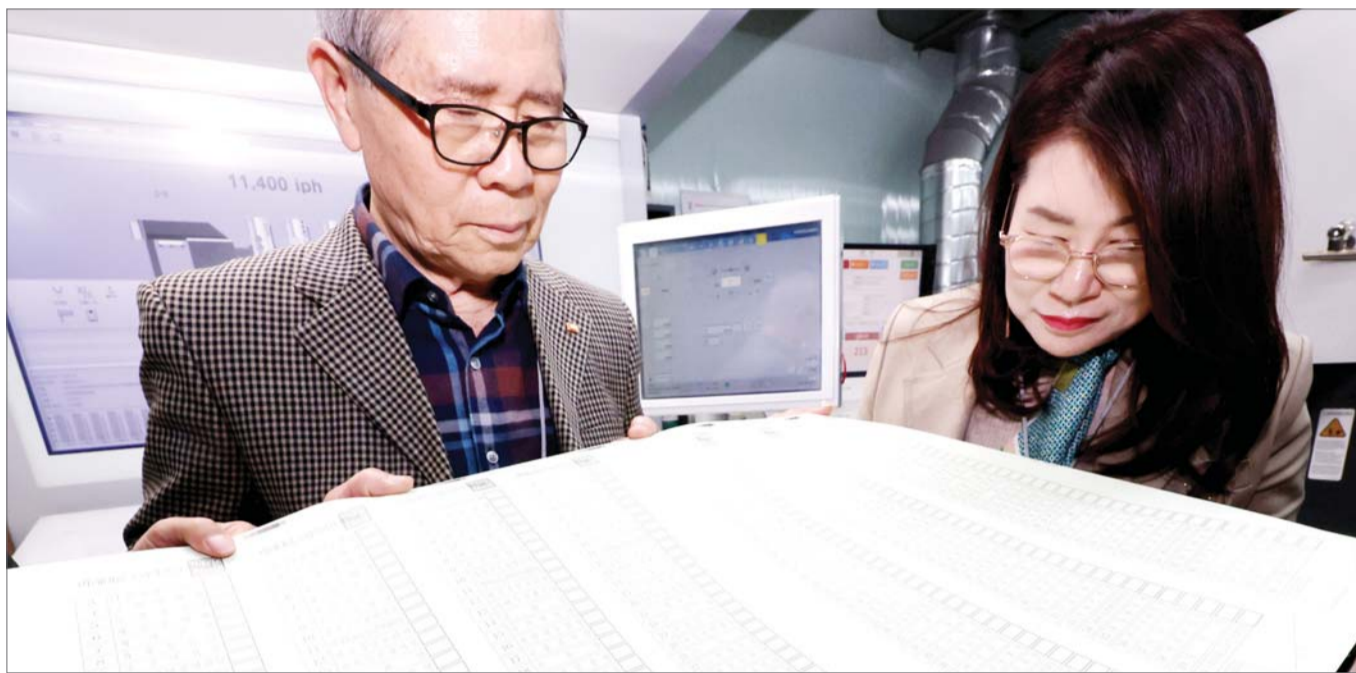
이번이 처음이다. 하지만, 윤 대통령은
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
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
강조했다.

윤 대통령은 먼저, 의사 증원 필요성
에 대해 “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
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
구나 동의하실 것”이라며 “어떤 연구
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
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
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
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
토하고,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
꼼꼼하게 챙겼다”며 2000명이라는 숫
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
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, 이를 결정하
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
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.

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의 단계
적·점진적 증원 주장에 대해서는 “애초
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찌
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, 단 한
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
다”며 “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
한다면, 지금부터 몇백명씩 단계적으
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
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”라고 반박
했다.

아울러 “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
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목
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
와 근거도 없이 350명, 500명, 1000명
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
있다”고 지적했다.



인쇄 시작된 총선 투표용지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인선 연구 선거관리위원회 정
당 추천위원들이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. <관련기사 4·6·8면> /뉴스

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
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반
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
집단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
혔다.

윤 대통령은 “27년 동안 반복한 실수
를 또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”며 “국
민의 90%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
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
다. 역대 정부들이 9년 싸워 9년 모두
졌고,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
더욱 공고해졌다”고 지적했다.

<4면에 계속>

/박정익 기자 pathfinder@metroseoul.co.kr

통신비 압박에 지원도 부진 통신업계, 수익악화 본격화

통신3사, 내년 5300억 매출 손해
중저가 가입자 증가로 수익 줄어
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위축 불가피

한국 통신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
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 정부가 통신비
인하를 압박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수
익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.

여기에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통
신 설비투자(R&D) 대한 지원은 지지
부진하다. 특히 글로벌 위성통신 선점
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
은 수십 조원을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
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절하는 등 주
요 플레이어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
있다.

1일 정보기술(IT)업계에 따르면 이
동통신3사(SKT·KT·LGU+)가 내년
부터 합산 5300억 원의 매출 손해를 입
을 것으로 보인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저가 5G
요금제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장기적
으로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
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
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. 가계
통신비 부담 완화는 곧 이통사 매출이
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다.

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6월
46% 수준이었던 5G 무제한 요금제 가
입자 비중은 지난 2월 31.3%로 두자릿
수 감소했다. 휴대폰 5G 가입자 점유율

로 계산하면 SK텔레콤(48%)은 연간
약 2500억 원, KT(28%)는 약 1400억
원, LG유플러스(23%)는 약 1200억 원
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.

반면 통신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
개발은 위축되고 있다. 수익 악화가 본
격화되면서 설비투자(R&D)는 비용을
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
도 지지부진하다.

◆스페이스X 한국 제외

실제 글로벌 통신 시장을 주도할 핵
심 기술인 '저궤도 위성통신' 관련 예비
타당성 조사(예타)도 실패했다.

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
저궤도 위성통신 국가연구·개발사업
예타를 신청했지만 두번 거절 당했다.
국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
축돼 활용도가 높지 않은 데 비해 투자
비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.

하지만 저궤도 위성은 전세계 산업
군을 뒤흔들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.
저궤도 위성통신은 수백, 수만 개에 이
르는 통신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한 '위
성통신망'을 통해 전세계에 광대역 인
터넷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.

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
고 글로벌 로밍도 필요없어 세계 어디
서든 위성 통화를 할 수 있다. 이에 산
업계 전체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
다.

<3면에 계속>

/구남영 기자 koogija_tea@

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... IT품목이 '효자'

산업통상부 '3월 수출입동향'
수출 3.1% 늘어 565.6만 달러
무역수지 10개월째 흑자 기록

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, 무역
수지는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. 최
대 수출품인 반도체 등 IT 품목이 수출
실적 우상향을 견인했다. 산업통상부
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월
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.

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가 1.5일 감
소했음에도 전년 대비 3.1% 증가한
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. 수출 증
가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
졌다.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
도 9.9% 증가한 25억1000만달러다.

수출 우상향을 이끈 건 반도체를 비
롯해 디스플레이, 컴퓨터, 무선통신기
기 등 4개 IT 품목이다. 15대 주력 수출
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, 4개
IT 품목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
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.

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
동월 대비 35.7% 증가한 117억달러다.
이는 2022년 6월(123억달러) 이후 21개
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.

디스플레이(+16.2%), 컴퓨터(SSD,
+24.5%) 수출도 각각 8개월, 3개월 연
속 증가했고, 무선통신기기 수출(+5.
5%)은 3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
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.

선박 수출은 102.1% 증가하며 8개

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고, 바이오
헬스(+10.0%) 수출도 5개월 연속 늘어
다. 석유제품(+3.1%) 수출은 1개월 만
에 플러스로 전환됐다. 다만, 조업일수
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(-5.
0%)와 일반기계(-10.0%) 수출은 감소
했다.

지역별로 보면, 9대 주요 수출지역
중 양대 수출국인 미국, 중국을 비롯해
중남미 등 3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.

특히,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
라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. 대중 수출은
105억2000만달러, 대미 수출은 109억
1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0.
4%, 11.6% 증가했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

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



▲ 아권, 윤 담화에 “혹시나 했더니 역시
나 불통 정부” 맹비난
▲ 여 “김병기,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”에
김병기 “허위... 법적 조치” /사진 뉴스스

▲ 한동훈 “이재명, 형수 욕설 드러나자
눈물... 그제 악어의 눈물
▲ 국민의힘 “5세 무상교육 재원, 7000
억 추산... 교육청·지자체와 협의”



▲ 여, 윤 담화 두고 설전... “정치 손 떼
라” vs “김히 대통령에게” /사진 뉴스스
▲ 여, ‘양문석 편법대출’ 조사 촉구...
“새마을금고 관례 아니라고 해”